

'손세이셔널' 개막전 결승 축포 작렬

2021-2022 EPL 개막전서 디펜딩 챔프 맨시티 사냥 통산 7호골로 '천적 증명' 맹활약 속 1-0 승리 견인



16일 (한국시간) EPL 개막전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는 손흥민. 연합뉴스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이 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를 상대로 리그 1호골을 폭발하며 팀에 승리를 선물했다.

손흥민은 16일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 2021-2022 EPL 1라운드에서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후반 10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의 득점을 끝까지 지켜내며 맨시티를 1-0으로 제압했다.

이적설에 휩싸이면서 프리시즌에 늦게 합류한 해리 케인이 출전 선수 명

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선 손흥민은 이번 시즌 지휘봉을 잡은 누누 이스파리투 산투 감독의 토트넘 데뷔전에 첫 득점을 선물했다. 손흥민은 맨시티를 맞아 산투 감독

모라가 내준 패스를 잡아 페널티아크에서 오른발 슈팅을 했지만 불이 앞을 가로막은 맨시티 주장 칸셀루의 엉덩이에 맞고 굴절돼 오른쪽 골대를 살짝 벗어나며 아쉬움을 남겼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 10분 만에 득점포가 터졌고,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역습 상황에서 베르흐베인이 중원까지 치고 올라간 뒤 오른쪽 측면으로 쇄도하던 손흥민에게 불을 연결했다.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앞을 가로막은 맨시티의 아케를 따돌리고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맨시티 골문 왼쪽 구석에 불을 쏘았다. 손흥민이 개막전에서 터뜨린 리그 1호 골이었다.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개인 통산 7골(정규리그 4골·UEFA 챔피언스리그 3골)을 따내며 '천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특히 손흥민은 잉글랜드 무대에서 사우샘프턴의 골문에 11골(정규리그 9골·FA컵 2골)을 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가운데 맨시티를 상대로 두 번째로 많은 골맛을 봤다. 연합뉴스

LG-kt 치열한 선두쟁탈전

KBO리그 50승 선점 경쟁 7위 두산은 운명의 일주일

이번 주에는 시즌 50승에 도달하는 팀이 나온다. 50승 선점은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을 향한 7부 능선을 넘는 일과 같다.

실제 지난해까지 50승 선취팀의 정규리그 우승 확률은 30년 중 21번으로 70%를 찍었다. 60승, 70승 선취팀의 한국시리즈 직행 확률은 70%를 웃돈다.

48승 33패를 거둬 1위를 질주하는 kt wiz가 50승 선점 0순위 후보다.

2위 LG 트윈스(46승 34패)는 수원에서 선두를 놓고 kt와 주중 원정 3연전을 치른다.

kt는 5연패를 당했다가 주말 삼성 라이온즈를 제물로 3연승을 챙겨 분위기를 바꿨다. LG도 롯데 지이전에서 연패했다가 에이스 케이시 켈리의 역투에 힘입어 15일 승리를 따내며 한숨을 돌렸다.

kt는 KBO리그를 잘 아는 재러드 호잉을 데려와 타선을 보강했다. LG

역시 키움 히어로즈와 트레이드로 코타자 서건창을 영입해 최대 약점인 2루 공격력을 단숨에 만회했다.

이번 3연전은 달라진 전력으로 두 팀이 제대로 격돌하는 첫 번째 무대다. 시즌 상대 전력에서는 kt가 4승 3패로 LG를 약간 앞선다.

3위 삼성, 4위 키움, 5위 SSG 랜더스, 6위 NC 다이노스 4개 팀은 승차 3경기 안에서 앞치락뒤치락 팽팽하게 맞섰다. 중위권이 공고해진 상황에서 7위 두산 베어스는 녹록치 않은 일주일을 맞이한다.

NC보다 2.5경기 뒤진 7위에 처진 두산은 8위 롯데에 3.5경기 차로 쫓긴다. KIA 타이거즈, 한화 이글스 등 하위권 팀과의 안방 6연전에서 밀리는 장사를 하면 중위권과 하위권 사이에 갇히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강장 없는 후타미 레이스에 무승부 변수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흥미롭다. 10일 리그 재개 후 지난 한 주에만 4번의 무승부가 나왔다. 경기를 세밀하게 운영할 줄 아는 팀이 많은 승리를 챙기는 법이다. 연합뉴스

'무적' 기간 눌러담은 열정, 데뷔골로...

김시우, 정규시즌 마지막 대회 준우승

K리그1 강원FC 임창우 '목표 향해 나아갔다'



14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해냈다.

측면 수비수 임창우(29·사진)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의 주역이었다. 북한과의 결승전에서 연장전 종료 직전 우승을 확정하는 결승골을 넣어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임창우는 팬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2016년 중동 무대로 진출했기 때문이다.

대표팀과 대중적 관심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는 아랍에미리트(UAE) 알 와흐다에서 행복하게 축구를 했다.

임창우의 중동 생활은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아이없게 끝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리그가 전격 중단된 가운데 공교롭게도 상반기를 끝으로 소속 팀과 계약이 종료됐다.

결국 임창우는 2020년 하반기 6개월을 '무적' 신분으로 보냈다.

2020시즌을 앞두고 임창우는 K리그1 강원에 입단했다. 오른쪽 풀백과 원백, 수비형 미드필더 등을 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인 임창우는 광주전부터

14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해냈다.

14일 대구FC와 홈 경기에서는 강원 데뷔골까지 터뜨렸다. 6년 만에 넣은 K리그 데뷔골이기도 했다.

임창우는 0-0으로 팽팽하던 후반 23분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과감하게 왼발 땅볼 슈팅을 때렸다. 슈팅은 몸을 날린 대구 골키퍼 최영은의 손을 맞고 골대로 들어갔다.

수훈선수로 선정돼 경기 뒤 인터뷰를 한 임창우는 "6년간 K리그 팬들께 저의 축구를 못 보여드렸는데,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후반기 강원FC의 반전을 보여드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PGA투어 윈덤 챔피언십 임성재·이경훈 PO 진출

김시우(26)가 최종 라운드에서 6타차 열세를 따라붙어 연장전에 진출했지만, 아쉬운 준우승을 거뒀다.

김시우는 16일 (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셰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640만달러) 최종일 연장전에서 케빈 키스나(미국)에게 우승을 내줬다.

김시우는 무려 6명이 참가한 최다인원 연장전을 벌였다.

김시우는 4라운드 샷과 퍼트에서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다. 5번 홀(파5)에서 331야드를 날아가는 장타를 페어웨이에 안착시키고, 221야드 거리에서 홀 4m 옆에 불을 떨어뜨리기를 잡아낸 게 압권이었다. 그러나 연장전에서는 샷이 흔들렸다. 연장 두 번째 샷도 처음은 그린을 넘어갔고 두 번째 연장에서는 병커에 빠졌다. 날카로운 쇼트게임으로 파는 지겨

웠지만, 연장전 승리에 필요한 버디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다.

김시우는 PGA 투어에서 세 번 연장전을 치러 모두 버디를 얻어맞고 무릎을 꿇었다.

2020-2021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를 준우승으로 장식한 김시우는 펙텍 스킵 랭킹을 30위로 끌어 올려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진출을 예약했다.

김시우는 "오늘 톱10 이내 진입만 생각했고 그래서 더 편하게 경기했다"면서 "기다려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플레이오프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성훈(34)이 3타를 줄여 공동 15위(13언더파 268타)로 대회를 마쳤다. 3언더파 67타를 친 이경훈(30)과 2언더파 68타를 적어낸 임성재(23)는 공동 24위(11언더파 269타)로 경기를 끝냈다. 안병훈(30)은 공동 35위(9언더파 271타)에 머물렀다.

임성재는 펙텍스 랭킹 31위, 이경훈은 34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강성훈과 안병훈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강력한 스파이크 16일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2021 의정부·도드람골프 프로배구대회 남자부 현대캐피탈-OK금융그룹 경기에서 OK금융그룹 차지환이 강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이날 경기는 OK금융그룹이 세트 스코어 3-1로 승리 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프로그램 8:25 아침열린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20 필독법상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속어도 꿈같은 세상 10:00 인강프로그램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경찰수업(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겐진 해피플러스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미치지 않고(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아로파티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우리집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45 숲속 배달부 빌빙 8:00 탐험대 유지원 8:30 동물 슈퍼퀵스 9:40 우리집 유지원 12:00 EBS 글로벌 뉴스 13:00 일단 해봐요 14:10 SBS 다크피리어드 15:15 클라쓰 e 16:00 마시와 꿈 16:30 탐험대 유지원 18:00 생방송 밤과 후등 19:35 자이언트 핑크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KBS네트워킹특선 빅 브라더 15:05 동행(재) 16:00 시사간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5 생생정보 스페셜 12:55 디류멘터리 3일(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브레드 이빨스(재) 15:30 TV 유지원 16: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6:50 백중원 클라쓰(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크리켓팅 12:50 뽀뽀보 동아저장 13: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3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아무튼 출연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TV 동물농장(재) 14:00 뉴스프리즘 16:00 내몸이야(재) 17:00 SBS 오 뉴스 17:35 JIBS 뉴스 17:50 행복설계 알짜배기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다리가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왕에게 감사합니다- 12:00 CBS 뉴스 12:05 천왕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대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관승부 21:35 라디오강연 22:05 뽀뽀보의 가스펠 어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보물섬 20:30 속어도 꿈같은 세상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역사저널 그날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리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빨강 구두 20:30 노래가 좋아 21:30 경찰수업 22:40 목판사의 문재야들	18:05 자치분권대학특강 시즌2 똑똑, 자치분권입니다 19:05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스퀘어 21:00 아무튼 출연 22:30 PD수첩 23:30 100분토론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순진포차 세상에 이면일이 22: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23:30 리우즈(재)	7:00 KCTV 뉴스 8:00 세계의 99번상 8:30 KCTV 스페셜 9:00 KCTV 뉴스 12:00 KCTV 스페셜 13:10 여자 플러스 14:00 세계의 99번상 15:10 UHD 제주산책 15:20 헬렌지 퀴즈쇼 17:00 KCTV 뉴스 17:40 KCTV 시청자세상 18:00 세계의 99번상

오늘의 운세 17일
김중상 저단(組田) 지역명학 원장
경기도 평곡동 교수(010-5233-6136)

36년 일이 있으면 기쁘고 없는 자는 돈 문제로 걱정이 생긴다. 48년 가정사 문제로 불화 또는 형제간에 는쟁이 생기니 먼저 나서서 받고 관망하라. 60년 각종 인허가 계약에 관계된 일은 순탄하다. 72년 아이디어가 튀어나거나 재기가 있어 직장인은 인정받음. 84년 분식 단란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잘 관리할 것.

42년 신경이 예민하고 불화가 찾아온다. 인내가 필요하다. 54년 문서, 이동 변화에서는 유리하니 부부 간에는 갈등이나 불화가 온다. 66년 손재주나 언변으로는 갈등이나 불화가 온다. 78년 생각보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 서둘지 마라. 90년 일이 필요시 주변에 요청하면 가능하고 맥을 잊지 않는다.

37년 약속이나 초대받을 일이 생긴다. 49년 자녀의 일로 고민, 전문가와 상담할 때면 희망이 된다. 61년 소송 또는 문서와 관계된 일은 불리하니 합의에 진 행함이 좋다. 73년 이벤트나 연구분야, 연수원, 레크 레이션 분야는 분주함이 많아진다. 85년 의사들에게 질타가 오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재가를 기다려라.

43년 일이 흐트러지고 안정이 되지 본인의 일에 충실 하라. 55년 매출이익이 따르거나 동업, 창업하려 한 다. 67년 가정에 사소한 문제로 갈등하거나 어려움 이 생긴다. 79년 행운이 복수에 있다. 오늘의 색은 빨간색. 91년 조경이나 헬스 또는 수영 등으로 건강 유지.

38년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주변과 어울려야 한다. 50년 가까이수룩 예의와 신용이 중요하니 친 하다고 막말을 하면 신뢰가 추락. 62년 손으로 하는 임종은 분주하고 이익이 따른다. 74년 아트·엔터테인먼트·화장업은 웃음을 잃지마라. 86년 중매가 들어 와도 반갑지 않다. 배반 또는 배신수가 있으니 조심.

44년 답답하던 일이 풀리거나 거래상사가 있다. 56 년 단체연수나 정기훈련에 참여하게 되기도 하고 모임에서 인정을 받기도 한다. 68년 반가운 소식이 나 답답하던 일이 해소되며 교육인사직원들 활용하라. 80년 의논 상의하면 답을 찾으나 혼자 해결은 속 수무해. 92년 친구, 동료에게 상의할 일이 생긴다.

39년 생각은 많은데 결정하기를 망설인다. 신속한 결정을 인정받는다. 51년 매매, 문서계약이 성사가 되고 금전적 이익이 있다. 63년 출장이나 연수 등에 참여하게 될 일이 생긴다. 75년 답답한 일 또는 오랜 기간 안 풀리던 일이 긍정적 조짐을 보인다. 87년 직 장인은 승급에 관한 일이 생기고 기쁜 소식이 있다.

45년 결단을 내리고 때를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57 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상대와 대화 시 부드러운 미소로 행하라. 69년 이성교제나 소개 가 생기니 행운은 동쪽이다. 81년 전문직이나 자격 을 요하는 분야에서 인정받는다. 93년 친구에 대한 근심이나 소식이 생긴다.

40년 당노로 고생할 수 있으니 검은 운동이 필요. 52 년 직장인에게 승진 또는 기쁜 소식이 있거나 중 책이 주어지기도 한다. 64년 마음에 정리가 되어가 고 다소 안정을 찾는다. 76년 평생교육을 통해 정보 활용 또는 강좌를 통한 정보공유. 88년 집념을 가지 고 끝까지 추진해 나가면 성공을 보장받는다.

46년 유사업종과 관련된 분야와 미팅, 회의주선. 58 년 거절당하거나 일이 중도에 멈출 수 있으니 큰 기대는 하지 마라. 70년 상대가 나의 노력을 믿고 인 정해주시기 이렇듯 일수록 책임완수가 필요. 82년 전 문지식이 필요함을 느끼니 늘 준비하는 습관이 필 요. 94년 분주하며 현실적인 이익이 있다.

41년 자녀로 인한 걱정이나 직업으로 고민한다. 53 년 토목·비즈니스·인강·컴퓨터·통신분야 매출 증가. 65년 함께 대화나 음식을 나눠먹을 일이 생긴다. 교 재가 생기기도. 77년 때론 가족이나 친구가 그림다. 먼저 연락이 왔다면 상대가 응해 준다. 89년 아는 길 도 물어가는 심정으로 웅장함과 상의하라.

47년 끝까지 노력을 필요로 하며 긍정적 생각만이 안정토록 할 수 있다. 59년 경험과 노하우로 어려움을 극복한다. 71년 부부간 갈등이나 다툼이 있거 나 이성간 교제가 가까워 질 수 있다. 83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과 실천 필요. 95년 자기 주관 이 필요한 날이며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02-740-7331 / MBC 02-740-2432 / JIBS 02-740-7800 / KCTV 02-741-7723 / 제주CBS 064-748-7400